

다니엘

-열세 번째 이야기-



100Page

나 레 이 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었어요. 다리오왕은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에 감명을 받아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혔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 받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다니엘을 혼내줄 방법이 없었어요.

신 하 들 아니 뭐 사람이 저러냐. 잘생겼지. 똑똑하지. 부지런하지. 정직하지. 야! 너 다니엘 팬이야?
저 외국인 녀석을 어떻게 쫓아낸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101Page

신 하 1 왕 이시여 지금 이 나라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 하 2 앞으로 30일 동안 왕께만 절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신 하 3 만약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모두 사자 굴 속 에 던져 넣으세요.



102Page

나 레 이 션 다리오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도장을 찍고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어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어요.

신 하 1 크크크 내가 뭐랬어... 자.. 목소리좀 가다듬고.. ㅎㅎ...
즈어어언하!!!!!!!!!!!!!!!!!!!!!!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어 주십시오.



103Page

나 레 이 션 왕은 다니엘을 무척 아꼈지만 법을 어겼기에 할 수 없이 사자 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왕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나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 레 이 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했어요. 왕은 다니엘이 걱정 되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날, 왕은 아침 일찍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대는 사자 굴로 달려갔어요.

왕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나 지켜주셨느냐?

다 니 엘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104Page



105Page



106Page

나 레 이 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굶주린 사자들도 온순하게 다니엘 곁을 지켰어요. 왕은 너무도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찾아냈어요. 몹시 화가 난 왕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신 하 1 저.. 저기 사자님.. 저도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네?? 으악!!
으아아악!!!!

신 하 들 으아!!!!!!!!!!

나 레 이 션 왕은 백성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평안히 살았습니다.